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장로 · 안수집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오늘 주일4부예배 후, 본당



지난 주 (주간충현)을 통해 공고된 제42대 장로 · 제22대 안수집사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 오는 공동의회에서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충현교회 등록교인은 모두 참석하여 귀중한 믿음의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회의 투표 결과에 따라 장로 및 안수집사 피택이 결정되며 권사 후보자 피택에 대한 위임여부도 가결하게 됩니다. 피택자교육은 다음 주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십자가에 기초한 일꾼(딤후 4:6)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별도의 교구모임이 없으니 세례교인들은 모두 본당으로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고전 4:1)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음 주일(4월 5일), 종려주일 및 가족연합예배(2 · 3부)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수난을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로, 사순절의 여섯 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the 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전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요 12:13)를 흔들은 데서 기인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지고 종려주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아 · 유아 · 유치 · 고등부를 제외한 모든 교회학교의 자체 예배는 없으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연합예배(2 · 3부)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가정은 2부예배를 드리지길 바라며 어른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자녀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임하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연례절기를 끝나는 종려주일이 아닌 갈보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행 2:28)을 걷는 믿음의 출발선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교회 일정

- 5월(주) 종려주일 및 가족연합예배(2 · 3부)
 피택자교육 개강예배(찬양예배 후) 제6차 CMTCC①(찬양예배 후)
- 6월(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월-금)
- 8월(수) 장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10월(금) 성금요일 칸타타 및 성찬식(금요찬양집회 시)
- 12월(주) 부활절 특별찬양(찬양예배 시) 제6차 CMTCC②(찬양예배 후)
- 15월(수) 총회 교직원 전도(수요1부예배 후, 역전도회)
- 18월(토) 총회 교직원 전도(14:00, 남전도회)
- 26월(주) 장애인주일, 제2차 학습 및 세례식(찬양예배 시)

하절기 저녁예배 시간 변경 (수요2부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4월 8일 수요2부예배 시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율법의 지도 아래 있는 인간 : 유대인과 율법 (로마서 2:17~29)

이방인은 누구며 유대인은 누구인가? 이삭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을 한 아버지로 가졌으나 하나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자요,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자이다. 율법을 지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선과 악을 분간하며 자신들이 선생, 인도자,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다(롬 2:17~20).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에 걸맞지 않은 처지에 있음을 밝혔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유대인의 특정한 위치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바울 자신은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살 때에 얼마나 이것들을 자랑스러워 했는지, 자신과 유대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율법에서 완전하게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제 그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고전 3:18~19, 23). 율법의 중요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더 중요한 진리를 얻었다. 바울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율법에서 배워야 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더 귀한 보배를 취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빌 3:5~9).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율법을 받은 것과 아는 것으로 그쳤다는 점이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율법에 대한 믿음이다. 유대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죄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롬 2:21~22). 유대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과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율법을 자랑하는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무시한 점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이다(롬 2:24).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다. 유대인들이 범람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유대인은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던 말인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며 그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유대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핑계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할례는 다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이다(신 30:6; 수 5:2, 9).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로서 할례의 증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들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 유대인인가? 할례가 전혀 아무런 뜻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 바울은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임을 밝혔다(행 4:4, 6:10). 할례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언약은 율법이다. 그러므로 할례의 언약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롬 2:25).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처럼 율법을 범할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을 오히려 할례 받은 자들처럼 여겨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제 그 위치가 바뀌었다(롬 2:27).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즉, 율법이나 할례가 유대인들과 함께 십대 앞에 설 것이며 또한 무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마 12:41).

율법을 성취한 무할례자는 누구인가?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율법 전체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 때문이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유대인들을 수척스럽게 해 줄 수 있는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이런적 유대인도 말함과 동시에 또한 자연인 상태에 어떤 새로운 것이 추가됨을 말했다. 즉 영적 할례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바울과 베드로처럼 아직도 유대인이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가 자연적인 유대인의 상태에서 즉 이방인과 다름없이 태어난 자연인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갈 2:15~16).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할례자 할례가 효력이 있다(갈 5:6).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의모를 보시지 않는다(골 2:11).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면적인 데에 대답이 있다(골 3:11). 이것은 바울이 새롭게 깨닫고 거듭 강조했던 말씀이다(롬 2:28~29). 구약도 언급하였다(신 10:16; 행 9:25).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자(롬 8:11, 14). 아멘.

PALM SUNDAY

⁽¹⁾When they had approached Jerusalem and had come to Bethphage, at the Mount of Olives, then Jesus sent two disciples, ⁽²⁾saying to them, "Go into the village opposite you, and immediately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and a colt with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 ⁽³⁾When He had entered Jerusalem, all the city was stirred, saying, "Who is this?" ⁽⁴⁾And the crowds were saying, "This is the prophet Jesus, from Nazareth in Galilee." (Matthew 21:1~11)

As the last week of His earthly ministry approached, Jesus humbly began His walk toward Jerusalem. When He entered Bethphage, at the Mount of Olives, which is a village about one-half miles east of Jerusalem,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to get Him a donkey, "Go into the village opposite you, and immediately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and a colt with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you shall say, 'The Lord has need of them,' and immediately he will send them"(Mt. 21:2~3). Jesus did this to fulfill an Old Testament prophecy. The night before His descent into Jerusalem, Jesus spent time with His dear friend Lazarus and his two sisters, Mary and Martha in Bethany. At the supper table, Lazarus reclined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while Martha served the food, "Mary then took a pound of very costly perfume of pure nard, and anointed the feet of Jesus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Jn. 12:3). Mary's anointing of Jesus was in anticipation of His burial. On Palm Sunday, the King of kings began Hi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to present Himself to Israel as her King.

Jesus deliberately chose a donkey and her colt for His entrance to fulfill the prophecy spoken by Zechariah,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in triumph,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He is just and endowed with salvation,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Zech. 9:9). Jesus lived His earthly life as a poor person. He did not accumulate material possessions. He did not even own a home,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Lk. 9:58). When the kings of old entered their kingdoms, they did so lavishly. They had fancy horses, dressed in the finest clothing, and had an elaborate array of soldiers follow in front and behind them. Jesus entered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colt. His clothes were commonplace. His followers were ordinary citizens. The only thing grandeur about this celebration was the person of Jesus,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King of all kings. Jesus is not like other kings; He is not an earthly conqueror,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2Cor. 8:9).

Jesus, the Messiah, was welcomed by the crowds into Jerusalem. Prior to this special event, wherever Jesus went He was generally mistreated. People disrespected, insulted, and even tried to physically hurt Him. But on this Palm Sunday, the crowds praised Him an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Mt. 21:9). They spread their coats in the road and cut branches from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for Jesus to go over. Their hearts rejoiced

as Jesus gently and humbly came into Jerusalem. His message of salvation was clear,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Mt. 11:28~29). Jesus wants to conquer this earth with peace, He wants to give us heavenly blessings,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Eph. 1:3). Jesus brings us into His family tree,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formerly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Eph. 2:13). Believers are legally grafted into the blessing family of King David, whom God promised the eternal throne.

Jesus, the Son of David, was not recognized by the people of Jerusalem, "When He had entered Jerusalem, all the city was stirred, saying, 'Who is this?'"(Mt. 21:10). The great religious leaders and the devout Temple goers of the holy city of Jerusalem did not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Even though the Scriptures spoke of this special time, God's people did not figure it out. The crowds told them, "This is the prophet Jesus, from Nazareth in Galilee"(Mt. 21:11), but they were confused. Even Pontius Pilate recognized Jesus as King of the Jews when He said to them, "Behold, your King"(Jn. 19:14). Psalm 2:4~6 says, "He who sits in the heavens laughs, the Lord scoffs at them. Then He will speak to them in His anger And terrify them in His fury, saying, 'But as for Me, I have installed My King upon Zion, My holy mountain.'" King David prayed, "May his name endure forever; May his name increase as long as the sun shines; And let men bless themselves by him; Let all nations call him blessed. Blessed be the Lord God, the God of Israel, who alone works wonders. And blessed be His glorious name forever; And may the whol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Amen, and Amen."(Ps. 72:17~19).

My dear friend, you say that you believe in Jesus Christ, but do you really? The crowds that followed Jesus into Jerusalem wanted salvation from the oppression of Rome, not the spiritual salvation that Christ offered. Do you look to Jesus for earthly success? The city people were looking for a political conqueror, not a king riding on a donkey. Do you really understand Jesus' humbleness? Zechariah's prophecy was true and accurate on Palm Sunday. God warned His people of the Messiah's coming, but they did not understand because their spiritual eyes were blinded by pride. Instead of believing God's Word and praising Him for His love, they all gathered together to have Him crucified. Four days after He walked into Jerusalem as King, He was crucified. God's Word is still happening! Today is Palm Sunday. Do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King? Are you really serious about welcoming Him into your life? Please drop your pride and open your heart to hear God's Word, so that His grace can enter your soul forever. Amen. 🙏

다음 주일 설교

총려주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뱃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개로 끌고 오라 ...”⁽¹⁾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²⁾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1~11)**



김성관 목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 기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겸손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0.5마일쯤 떨어져 있는 감람산의 뱃가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자 둘을 보내어 나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개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마 21:2~3).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 마르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동안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

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군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3).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마침내 총려주일이 되자 왕 중의 왕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속 9:9).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마를 집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리라 하시고”(눅 9:58).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왕국에 입성할 때 매우 화려로운 입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장신구를 갖춘 말을 타고 가장 값비싼 옷을 입었으며 의장대의 호위를 받았습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인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마 21:10).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위대한 종교지도자들과 성전을 출입하던 경건한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특별한 순간에 대해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마 21:11).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본디요 빌라도까지 “보라 너희 왕이로다”(요 19:14)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2:4~6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시라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나 하시리로다.” 다윗 왕은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니 사람들 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시 72:17~19).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았다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총려주일 이전에 예수님은 가졌던 곳마다 대부분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했고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총려주일이 되자 군중들은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마 21:9). 그들은 자신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들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서 주시는 영혼 구원이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나귀를 타고 온 임금이나 나라 정치적인 정복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의 겸손함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총려주일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진실하고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교만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대신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함께 연합했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나흘 만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맞이하십니까? 진실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환영하십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아멘.

수요부예배 메시지(2009. 3. 25.)

두 시민권
(빌립보서 3:17~20)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빌립보 회교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다. 바울은 오직 예수에게 메인 자신을 받받을 것과 빌립보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성도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였었다(빌 3:17).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바울은 간절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짓 성도들에게 대해서 언급하였다(빌 3:18).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철저히 세상 중심적이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빌 3:19).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교회를 출입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나 성경을 이용하여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가려는 알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행하고 있는 중이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이기에 많은 분쟁과 다툼에 휘말리게 된다.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아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정명으로서의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 두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빌 3:20). 천국시민의 권리는 하늘에 있다. 따라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의 권세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 계속해서 괴롭히며 도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과 도전은 영원하지 않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책임이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벧전 1:3). 우리의 계획과 열정으로 꿈꾸는 소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참 소망이며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실존이다(고후

5:17).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듭난 신자의 삶은 피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사신)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후 5:20; 마 5:16). 건강과 풍족한 물질, 풍과 없는 삶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상풍파가 우리를 괴롭혀 하려도 십자가의 은총을 배후신 주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을 죄로 어두워진 한 가운데 비춘다(벧 2:15~16).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생명의 말씀에 순종(고후 1:19)할 때 얻는 주님의 은총이다. 천국의 시민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뿔어내는 십자가의 향기이다(고후 2:15~16).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이기에 우리에게는 늘 분쟁과 다툼이 있다.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말씀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또한 자신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닌지 돌아보며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빌 3:18~19).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요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기준은 믿음이며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

분쟁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이기에 우리에게는 늘 분쟁과 다툼이 있다.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말씀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또한 자신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닌지 돌아보며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빌 3:18~19).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요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기준은 믿음이며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

당신은 두 시민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십자가의 향기를 뿔어내자. 동시에 세상의 시민으로서 양심을 따라 살며 권세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이기에 많은 분쟁과 다툼에 휘말리게 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자(마 16:24). "앞으로, 천성을 향해,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아멘.

마가복음 강해 64

* 매우 절도색까지도(새책 445)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12:13~17)

예수님은 가이사라 보세니 메시아였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리스도였다. 그렇에도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바리새파와 헤롯당이 적대적인 관계였음에도 연합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이 되어 있었다(막 3:6). 예수를 향한 종교지도자들의 시험은 치밀하였고 교묘하였으며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막 8:11, 10:2, 11:27).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 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께의 뜻에 따라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다(막 1:13).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막 12:13).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지도자들의 계략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계략은 이번에도 교묘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막 12:14). 이 말만을 놓고 볼 때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였다.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은 드러났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요?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니까? 말리니까?" 이것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보낸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빌리미 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함정이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정치에 능통한 헤롯당이 연합하여 만들어낸 교묘한 질문이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였다. 따라서 로마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문제거리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게 세금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지금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은 로마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이다(레 25:23).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이다.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반대자들의 명백한 함정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식함을 관파하고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막 12:15).

예수님은 그 대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으셨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따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대답하셨다(골 2:4). 우선 예수님은 당시 활발히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이자 세금을 낼 때 주로 사용되었던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막 12:15). 예수님은 데나리온 앞면에는 가이사의 형상, 뒷면에는 가이사의 글이 적힌 은화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셨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막 12:16). 반대자들은 대답하였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한 꼴이 되었다. 이에 예수님은 반대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 12:17).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매우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지도자들의 계략은 이번에도 실패하였다.

예수님을 몰무에 걸리도록 시험한 악한 무리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흔 수 없이 많다. 이들은 우리 무형의 모습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제시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말쑥 안에 거하지마(마 6:24; 롬 13:1). 천국에 가까이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가를 붙들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자.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중등1부 1팀

어려운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웃으면서 받아준 분들에게 감사하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도 팀원들이 웃으면서 팀장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한 것이 감사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도 더 못 전한 것이 후회된다.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여름에도 선교를 가고 싶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조예민)

선교지에서 처음 사람을 만날 때에는 주눅처럼했는데 점차 자신감이 붙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전대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라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았다. 순간 너무 부끄러워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굳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어서 지금도 생각이 난다. (조예민)

선교에 직접 참여해 보니 매우 많은 것을 느꼈다. 때로는 웃음이 있고 마음이 잔잔한 적도 있었고, 선행집에 귀중도 많이 들었다. 매우 덥고 음식도 어색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기본은 좋았다. 사역할 때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김동진)

선교지에서의 일들은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 이렇게까지 불려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팀원들끼리 화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김정수)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얼마나 못나고 나쁜 학생인 것을 깨달았다. 나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훈련기간 동안 같은 팀원으로 있는 친구 한 명을 따돌림하였다. 그런 가운데 때가 되어 선교지에 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였다. 선생님을 조장으로 3명이 한 조가 되어 전도를 하였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 함께 영접기도를 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 우리말로 기도도 했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개운치 않은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억눌렀다. 함께 간 선생님들이 저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한 친구를 따돌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함께 선교라는 온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따돌림하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선교사이고 그리스도인이냐?'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의 행동은 거짓이고 가증한 일이니 빨리 회개하고 친구를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셨다. 그때 우리들은 선교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김주현)

둘째 날에는 두 마을에 갔었는데 한 마을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주어야 했다. 그러자 잘 알아들은 것 같았다. 셋째 날에 어느 마을에 갔다. 맨 처음에 간 집은 식구가 엄청 많았는데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 그 소리에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 열집엔 3개월 된 갓난 아기가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지옥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았나?"고 물었다. "들어 보았다. 믿는다."고 했다. 정말 좋았다. 그 마을은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이서현)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러 선교를 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으로 벌써 10번째인 선교는 지금까지 내가 선교를 아무런 목적 없이 갔다 왔다는 것을,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귀한 선교였다.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할 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내 현저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다. (오다현 교사)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본심을 깨닫는 사역이었다. 목숨 다해 외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됨을 알게 되고 그동안 뿌려놓은 씨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아 기쁨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를 수없이 외쳤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소서." (류홍희 교사)

오전 사역을 거의 마칠까 시간 뜨거운 태양이 무섭게 내리쬐다. 땀이 절로 난다.



우리는 학교 한 모퉁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5살부터 7살 정도의 대역섯 명이 놀고 있다가 우리 주위로 다가와 반갑고도 귀여웠다. 두 아이만 슬리퍼를 신고 나머지는 모두 맨발이었다. 휴식장을 하고 놀던 어린이들은 온통 지저분했지만 눈만은 초롱초롱했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어린이들이 일제히 따라 불렀다.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영준 교사)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다. 우리는 길 한가운데 서서 외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소리가 점점 멀리온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밀려온다. 제일 나이 어린 선교사들과의 첫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는 순간 나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오라!" 부르셔서 순종하였고, "전하라." 하시기에 우리는 전하였다. 이제, 지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만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일만 남았다. (김영은 교사)

감사와 회개

이번 선교는 교사로서 가는 첫 번째 선교였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과의 선교는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회했지만 계속 선교를 피했습니다. 이번에도 피하고 싶었지만 저의 반 아이들이 무려 4명이나 선교신청을 한 것에 책임의식과 선교에 동참할 교사가 부족하여 어쩔수 없이 주변 상황에 떠밀려 선교준비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시작한 선교훈련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삼사반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겨 탈락하기를 은근히 바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팀이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많은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받으며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답답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스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어떻게 선교를 할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또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어느 때보다 담대하고 어른스럽게 전도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는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서 '나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전도하기가 힘들 거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도 감사한데 중등1부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학생들과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선교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박민지(교사, 중등1부 2팀)

새 것, 새 사람

“어머! 우리 학생들의 의자가 새것으로 바뀌었네요!” 주일 아침, 선생님과 학생들의 환한 미소 속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낡고 좁은 의자와는 달리 넓고 안정감 있는 의자는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 안쪽에는 각각의 소지품을 놓을 수 있고 앞뒤 사 랑과의 거리조절에서부터 협동심이 요구되는 책상은 말쑥한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놓기에도 편하고 성 장하는 학생들을 배려한 편안함과 책상까지도 안정감을 주는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감각적으로도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신앙의 굴곡도 매우 심합니다. 이들을 볼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심자가의 복음 을 가르쳐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 몸집이 많이 커버린 학생들이 불편한 자세 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복음을 배우는 이곳이 좋았는데 이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뿐입니다. 또한 말뿐인 천국일론 강의가 아니라 이와 같이 매 사에 천국일론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새 것은 금방 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자가의 복음은 영원히 새 것이기에 그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 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복음이 살아 역동하는 이곳에서 자라나는 천국일론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심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금오(권사, 중동2부 부감)



정치가칼럼

예바다부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심자가의 은총으로 연약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내가 청각장애인 부서인 예바다부 교사로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예바다부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부서에 서 봉사를 하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기 힘들겠네요.”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오히 려 청각장애인 성도님들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대답을 한다. 청각장애인들과 농담을 할 때면, 대화 밑미에 “이것은 농담이었다.”라고 꼭 설명을 하여야 서로 오해가 없게 된다. 한마디 농담 조차도 함들이 하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을 통해 온갖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 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청각장애인들은 직업에 제한을 받고 있어 생활 형편들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 일정한 직업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얼굴에는 언제나 밝고 기쁨이 넘 친다. 따뜻한 한마디 말에도 감동하며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 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세상으로 향해 있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뿐이다. 의정부 등 먼 곳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 타고 교회로 나오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계신다. 그 중에는 글자도 잘 모르고 수화도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 대화도 힘들때 심자가 구주의 은총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지,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두 손을 잡으면, 마주보는 눈빛으로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 다. 언제나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출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 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예바다부는 소리없이 온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피아노 반주와 음성 통역 과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진행한다. 특히 음성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시 각장애인이다. 맨앞자리에 앉아 어린 아이 목소리로 맑고 깨끗한 영혼의 찬양 을 드린다. 전청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구별없이 모두 하나 가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는다.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막 7:34).



변찬대

(인수집사, 예바다부 부감)

심자가의 길

성금요일 칸타타 ‘그리스도인의 삶’

사순절을 지내는 나에게 무엇이 새겨지고 있는가? 사순절은 우 리의 죄악 된 행실, 우리의 죄악 된 습관, 우리의 죄악 된 삶을 심자가 앞에 내세우고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지름을 나 에게 남아있어야 할 것은 오직 심자가 외에 아무 것도 없어야 한 다(갈 6:14). 특히 사순절은 심자가의 축음이 종착역이 아니다. 축음은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극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분명히 심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4 월 10일, 19:30)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성금요일이 특별한 이 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온 성도와 연합찬양대가 칸타 타(Cantata)를 하기 때문이다. 칸타라는 독창, 중창, 합창과 기 악 반주로 이루어지는 짧은 오라토리오 형식의 성악곡이다. 주로 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의 칸타타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처음 한 심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의 칸타라는 낯설기마 도 하다. 그런데 금요찬양집치 시에 성금요일 칸타타를 연습할 때마다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무척이나 크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된다.

〈내 주를 가까이〉 〈나 가진 모든 것〉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 을 찬양합니다〉까지 쉬운 곡은 아니지만 가사 안으로 들어가 은 혜로 찬송하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인 듯하다. 성금요일 칸타라는 청 소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한 곡 한 곡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동시에 자기 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제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4월 3일)가 성금요일 칸타타를 위한 아 지미 전체 연습이 될 것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순절, 그리고 성금요일 준비를 위해 집에서의 연습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주 금 요일은 모든 악수를 비워놓고 교회로 나오자.

성금요일 칸타타 순서

1. 서곡: 인간으로 나신(오르간 독주)
2. 인간으로 나신(연합 찬양대)
3. 내 주를 가까이(다합계)
4. 알렐루야, 아멘(여성3부)
5. 거룩한 예수여(혼성4중창)
6. 나 가진 모든 것(다합계)
7. 그리스도인의 삶 (바리톤 · 소프라노 솔로-다합계-연합 찬양대)
8. 주님을 찬양합니다(다합계 및 연합 찬양대)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37	이연희	5 고등부	김정순(3)	460	김지수	19 초등부	정현준(21)
438	박미혜	13 청년1부	이순재(11)	461	공보현	17 청년1부	이병노(18)
439	김규준	4 청년1부	산동수(4)	462	김혜미	7 청년1부	김은진(7)
440	토요	26 외선부	장용숙(21)	463	김혜선	7 청년1부	김은진(7)
441	엘미	25 외선부	장용숙(21)	464	켄리사	25 외선부	엘미(28)
442	오두루	14 청년1부	방영희(3)	465	아사	25 외선부	엘미(28)
443	박준형	13 중동부	3	466	이슬라바	25 외선부	김혜선(40)
444	황한화	4 청년1부	김원기(16)	467	안디	25 외선부	이영선(15)
445	김영희	24 청년1부	이민옥(24)	468	애니크리드	8 외선부	고남숙(12)
446	송미연	4 청년1부	안도희(16)	469	조계	25 외선부	박성삼(15)
447	이항수	1 청년1부	최영목(24)	470	스키미원	25 외선부	박성삼(15)
448	전자옥	1 청년1부	강 옥(1)	471	이혜민	13 고등부	유유진(1)
449	김연이	23 청년2부	주순희(3)	472	박소산	12 청년2부	이윤진(5)
450	조정자	8 청년2부	박영순(9)	473	공영수	12 중동부	공정자(9)
451	송순일	5 청년1부	한기희(5)	474	조영환	11 청년1부	조은진(10)
452	김해민	13 유년부	신호희(9)	475	고은수	11 청년1부	
453	심해민	13 초등부	신호희(9)	476	김수지	22 청년2부	김혜숙(24)
454	김정영	19 청년1부	오정환(6)	477	박민숙	9 청년2부	김영식(3)
455	이재정	4 대학부	박준근(9)	478	송숙목	5 청년3부	박계자(8)
456	이규구	25 청년1부	오희재(18)	479	김진형	21 예바다부	남은희(11)
457	허수진	15 청년1부	유종익(15)	480	조정성	3 청년1부	김정숙(12)
458	김두세	6 청년1부	김영목(7)	481	박태광	6 중동3부	김정숙(24)
459	김지혜	10 청년1부	이진규(6)				

* 중동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등록표에 오시기 바랍니다.*

